

민주, 지난 주말 호남권 공천 면접

■ ‘이명박 시대’ 지방 어젠다

③ 모든 문화는 지방이 뿌리

亞문화수도 지속 추진  
지역민에 희망 심어야

지방 분권을 내세웠던 참여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방 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기는 했지만 지역과 수도권의 ‘문화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문화정책은 서울 중심으로 짜여지고, 문화 관련 지원은 서울 지역 예술단체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 매칭 방식의 문화 사업들 역시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감당하기 버겁다.

사회·경제 분야와 달리 새정부의 문화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화권 뿐이다. 또 공약 사항이었던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성 역시 구체적인 정부 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충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빛고를 문화커뮤니티 센터(국비 330억원)과 영상복합문화관(57억원), CGI 센터(260억원), 국립중앙도서관 광주 분관(1천300억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의 중앙 집중화 해소는 새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2007년 문화예술연감’에 따르면 전시회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 9천여건 가운데 6천 100여건을 차지했고 클래식은 전체 57%가 수도권에서 공연됐으며 전담은 고작 0.5%에 불과했다. 타 장르도 마찬가지며 지방

“물같이 동의하나” 송곳 질문에 곤혹

“왜 탈당했나” “참여정부 평가” 질문도  
박빙 접전 ... 대부분 지역 경선 불가피



통합민주당 공천심사 후보자들이 2일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호남지역 후보자들에게 대한 면접은 1일 시작했으며, 3일 마무리된다.

지난 1일 통합민주당 중앙당사는 광주·전남지역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일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예비 후보들의 이력과 지역구 현안 등을 충분히 숙지한 공심위원들의 혹독하고 ‘까칠한’ 질문이 연일 이어졌으며 예비 후보자들은 연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을 열정적으로 제시했다. 면접을 마친 일부 후보들은 공심위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했으며 밝은 모습을 짓는 반면 날카로운 면접 질문이 이어진 일부 후보들은 어두운 표정을 짓는 등 엇갈린 풍경이 펼쳐졌다.

우선 현역의원들에 대한 면접에서 공심위원들은 낯선 질문을 퍼부어 현역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광주 북구 을의 김태홍 의원에겐 “호남 물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동의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 목포의 이상열 의원에겐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박관에 민주당을 지지 않고 왜 탈당했느냐”는 질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뜨렸다.

공심위원인 나주·화순의 최인기의 원도 2일 오후 동료 공심위원들로부터 면접을 당한(?) 뒤 “같은 공심위원이라고 은근히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몰아붙이더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공심위원들의 질문의 칼날은 원외 후보들에게도 이어졌다.

건교부 장관 출신인 광주 광산구 을의 이용섭 후보에게는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이 왜 서울로 출마하지 않고 광주 지역구에 나서게 됐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광주 서구 갑의 조영택 후보는 ‘참여정부 386 실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이틀째인 2일 호남지역 공천심사 면접 역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진행

됐다. 이날 심사에는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12대 1’의 공천경쟁률을 기록한 광주 북구갑이 포함됐다.

목포에 공천을 신청한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비교적 긴 17분간의 면접을 마친 뒤 “주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생각을 부합하느냐고 물어 공직을 하면서도 민주화 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노력했

고 후원세력도 민주화세력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편, 면접을 진행한 공심위원들도 호남 지역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 공심위원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호남지역은 경쟁이 치열해 대부분 경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내일께 1차 공천자 발표

“15번 안에 들자”

광주·전남 변경 지역구 7곳 추가 접수

민주 비례대표도 경쟁 가열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일 까지 모든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4일께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에 대한 1차 총선 후보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심사 결과에는 호남권 물갈이 공천의 결과가 상당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수도권 단수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세부공천 심사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도권의 경우 현역의원이 재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쇠신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점을 감안해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일 “단수 신청지역만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미룬 것”이라며 “3일 모든 면접이 끝나기 때문에 4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심위는 또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공천심사에 적용한 도덕성 기준과 관련된 2~3가지 기준안을 마련, 4일 최종 선택하기로 했다.

당 외부 출신 공심위원들은 범죄 전력이 예외없이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반면 당 내부 출신 공심위원과 일부 외부 출신 공심위원들은 개인적 차원의 비리 전력과 당을 위해 ‘총대’를 맨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합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을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례대표 입성을 위한 물밑 경쟁전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열세를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로 눈길을 돌리는 당내 인사들이 많아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현재 통합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은 14석~16석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26.1%)을 기준으로 할 때 대략 15석 안팎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출수에 배정되는 여성의 경우, 최 소 7명에서 최대 9명까지 비례대표에 지명될 전망이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군으로는 장 상 전 민주당 대표와

김상희 최고위원, 박선숙 전 환경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외부 영입인사로는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7장의 비례대표 공천 티켓이 가능한 남성의 경우 여성 후보에 비해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 등은 수도권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잠재적인 비례대표 후보군이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비례대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박주봉 케이씨티아이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추천 몫으로 공천심사위원인 황태연 동국대 교수 등이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다. 소설가 황석영씨와 김지하 시인 등도 잠재적 후보군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상품단지 구체 계획 세우고

지역문화 발전 청사진 제시해야

사에서 ‘기초 예술분야는 경제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할 것’ 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지방문화 진흥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없었다.

지역 문화계는 이명박 정부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의 성장 동력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최근 불거진 조성위 폐지 논란에서 보듯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광배해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2012년 안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과 아시아문화교류권 등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7대 문화권 중 2009년 실시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문화전당, 문화교류권, 시각미디어 문

출판계는 고사 상태다. 지역 문화기반 시설도 취약하다. 현재 전국 문예회관은 155개소에 달하지만 지방의 경우 건물만 있을 뿐 기획 공연비가 한푼도 없는 곳도 부지기수고, 534개에 이르는 박물관·미술관, 1천400여개에 달하는 도서관의 운영도 중앙과 지방이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적인 문화상품개발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원사업 등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은 장기 안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 문화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며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황산**  
골프장

무안 ↔ 항주 직항

광주/전남, 지역행사 판매  
문의전화: 02-226-6070

4년제골프회비 + 클럽10대 + 3주 4인 ₩3,200,000 - 4인 4주 ₩3,590,000 - 4인 5주	5년제골프회비 + 3주 4인 ₩599,000 - 4인 4주 ₩649,000 - 4인 5주
5년제골프회비 4인 ₩4,000,000 - 4인 4주 ₩4,390,000 - 4인 5주	6년제골프회비 + 3주 4인 ₩579,000 - 4인 4주 ₩629,000 - 4인 5주
6년제골프회비 + 소우회비 4인 ₩499,000 - 4인 4주 ₩549,000 - 4인 5주	7년제골프회비 + 소우회비 4인 ₩729,000 - 4인 4주 ₩779,000 - 4인 5주